

현대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 (II)

최 경 희* · 김 민 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Socio-semiotic Analysis of Plural Sexuality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II)

Kyung-Hee Choi* · Min-Ja Kim**

Ph. D.,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2. 5 투고)

ABSTRACT

The second part of this study is to typify plural sexuality articulated with fashion images in men's and women's popular fashion magazines in Korea since 2000 and ultimately to infer sexual ideology codified in modern fashion by a framework of this study, the socio-semiotic model. From this, sexuality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was typified as follows: in women's fashion Traditional Femininity, Glamor Femininity, Androgynous Femininity, Babydoll Femininity and Genderless sexuality, while in men's fashion Traditional Masculinity, Macho Masculinity, Androgynous Masculinity, Adolescent Masculinity and Genderless sexuali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modern fashion has been changed from a means expressing gender and class into a sign vehicle representing the new ruling system of age and sexual desire. The binary oppositional sexuality on center of man in the 19 C capitalist period has been gradually pluralized towards the post-capitalist period. Next, mainstream society in Korea is still positioned in the traditional heterosexuality, keeping the vertical power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even in the post-modern period. However, the fact that both Traditional Femininity and Androgynous Femininity acquire the position of dominant femininity connotes the change of modern femininity. Finally, plural sexuality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has family resemblance and it shows contextual flexibility within contemporary period as well as a historical context. As a result, sexuality floats with a specific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context, and fashion as a material culture represents a masquerade as a identity vehicle, which constructs and de-constructs sexuality at the same time.

Key words: sexuality(성), socio-semiotics(사회기호학), dominant sexuality(지배적 성), alternative sexuality(대안적 성), mainstream fashion(주류패션), anti-fashion(반패션)

corresponding author: Kyung-Hee Choi, e-mail: samchi28@hanmail.net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연구비에 의해 연구지원 되었음.

I. 서론

현대사회에 나타난 다양한 성 정체성들은 서로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 권력의 그물망을 형성한다. 역사적으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뚜렷한 성차가 나타난 이래, 20세기에는 하위문화나 포스트모더니즘 문화현상과 함께 패션은 갈수록 다원화되고 모순적인 성적 헤게모니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물질문화의 한 형식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Foucault¹⁾가 성을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유동하는 담론들로부터 생산된 권력과 지식 체계의 산물로 본 바와 같이, 이처럼 개별화된 정체성들이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현대라는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을 둔 여성성과 남성성의 의미에 대한 공유된 가정은 존재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성 정체성들 간에 나타난 지배담론과 저항담론 간의 변증법적 모순을 통한 권력관계의 측면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패션의 의미가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의해 변형되는 역동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사회기호학(socio-semiotics)은 이러한 물질문화 현상에 대한 하나의 맥락적 연구로,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맥락적 연구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사회기호학은 구조주의 기호학과 포스트모던 문화이론의 문제점을 수정하면서 등장하는데, 이는 물질문화에 대한 해석을 단순히 기표와 기의의 차원에서 벗어나, 물질대상의 영역과 이데올로기의 영역으로 세분화된 기호의 분해와 생산자/물질대상/사용자의 관계를 통한 이데올로기의 지배와 저항의 관계를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물질문화의 함축적 의미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후기구조주의적 측면의 다원적 성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기호학적 시각에서 2000년 이후 남녀 패션잡지에 나타난 다원적 성 유형과 현대패선에 코드화 된 성 이데올로기를 추론함으로써 현대패선에 표현된 성을 맥락적 차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본고는 제 1보에서 후기구조주의적 성의 개념에 관한 문헌적 연구와 더불어 사회기호학 이론으로부터 패션에 표현된 성에 적용된 본 연구의 방법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제 2보는 실증적

연구로, 여기서는 2000년 이후 패션에 표현된 성을 남녀 패션잡지들로부터 유형화하고 패션에 표현된 성에 적용된 사회기호학 모델에 따라 현대패선에 표현된 다원적 성 유형들과 패션으로 코드화 된 성 이데올로기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2000년 이후의 여성잡지 Vogue(Korea), Elle(Korea)와 남성잡지 GQ(Korea), Esquire(Korea)의 에디토리얼(editorial) 패션사진²⁾을 대상으로, 사회기호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2000년 이후라는 시간적 범위는 본 연구의 주제와 패션전문잡지의 확산시기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역사적 측면에서 새로운 세기라는 패션의 공식성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패션전문잡지가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 잡지들의 국내 유입과 더불어 속출하여 2000년 이후에는 이들이 대중화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대상의 선정기준은 '대중성'으로, 선정된 잡지들은 현재 한국에서 20~30대 독자층을 겨냥한 가장 대중성 있는 주류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잡지라는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리고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은, 상품 판매를 위해 의도적 조작과정을 보이는 패션광고와는 달리, 단순히 유행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문화의 재현으로서 패션의 상징적 의미작용과 사회 내 다양한 담론을 유추해 낼 수 있는 매체라는 입장에 의한 것이다. 분석과정은 먼저 예비조사 차원에서 내용 분석을 통해 남녀패션잡지에 나타난 주요 성 유형들을 분류한 후, 사회기호학을 적용한 본 연구의 분석틀에 의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근간으로 물질대상으로서의 패션으로부터 패션 이미지를 유형화하고, 이로부터 패션으로 코드화 된 성 이데올로기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이 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6년간의 패션잡지들은 계절적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연간 4분기로 축소되었으며, 여성잡지에서 217개, 남성잡지에서 130개, 총 347개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으로, 이들은 내용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37개의 패션사진이 사회기호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II. 패션계 표현된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시각

본 장에서는 제 1보에서 제시한 패션에 표현된 성에 대한 사회기호학적 시각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본 고의 실증적 연구를 위한 방법상의 틀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사회기호학은 사회 내 물질대상과 이데올로기의 접합에 의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물질문화 현상을 분석하도록 하는 맥락적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사회기호학은 후기구조주의적 입장에 근거해 모든 문화적 대상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갖는 물질대상인 동시에 의미작용의 요소로 보는데, 여기서 대상의 의미는 권력과 지식의 접합에 의한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전제하며, 다양한 사용자들에 의한 코드의 다의성은 하위문화에 의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기호학은 푸코가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따른 담론의 생산에 의해 유동하는 성에 대한 시각과 공유되는 측면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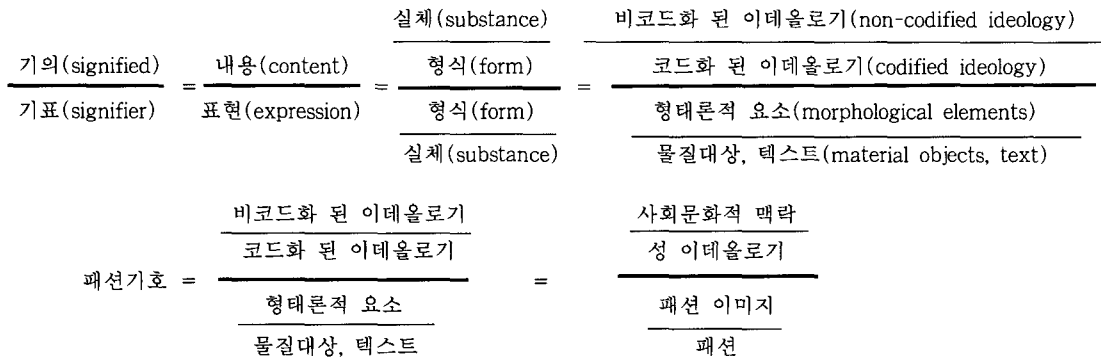
사회기호학적 시각은 본 연구의 패션에 표현된 성에 적용시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사회기호학은 패션을 물질대상이자 기호개체로 바라봄으로써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패션으로 코드화 된 이데올로기를 추론하도록 한다. 둘째, 사회기호학은 패션을 의미작용의 체계로 바라봄으로써 사회 내 지배담론과 주류 패션뿐 아니라, 하위문화 집단에 의한 저항담론과 반패션을 통한 새로운 의미 창조와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셋째, 패션의 의미작용의 측면은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 따른 코드의 변화를 통해 동일한 성을 표현하는 패션 이미지의 역사적 변화와 역사적으로 유동하는 성 이데올로기의 변화양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기호학 모델 (그림 1)에서 이데올로기는 사회집단의 가치 체계로서 기호의 내용, 즉 기호와 관련되며, 물질성은 기호의 표현, 즉 기표와 연결된다. 여기에서 내용의 실체는 코드화 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원과 배경을 구성하는 사회의 문화인 반면, 내용의 형식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상징적 행위를

통해 실천으로 코드화되어왔고 대상세계에서 물질화 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이다. 표현의 형식은 코드화 된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특정한 형태론적 요소를 지칭하는 반면, 표현의 실체는 대상들 자체로 코드화 된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며 물질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기호는 의미작용 체계의 일부이며, 어떠한 주어진 문화적 표현에 대해서건 다의성은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기호학 모델을 패션에 표현된 성에 적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적 틀(그림 1)을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의 실체는 패션 자체로 이것이 모여 패션 이미지를 창출한다. 물질대상으로서의 패션은 실루엣, 색채, 소재, 아이템 등의 요소들로 세분화되며, 패션사진의 텍스트로서의 패션은 복식을 포함한 여러 시각적, 편집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를 포함한다. 둘째, 표현의 형식은 코드화 된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특정한 패션 형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양한 패션 이미지로 계열체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패션 이미지는 패션이 어떻게 특정 룩이나 스타일을 구현하는 지를 보여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통합체적 구조를 통해 주류패션 혹은 반패션의 형태로 성 이데올로기에 부합한다. 셋째, 내용의 형식은 사회 내에서 물질화 될 수 있는 성 이데올로기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상징적 실천들로 코드화된다. 패션 소비자는 다양한 패션 이미지들을 통해 개인의 성 정체성을 실험하고, 문화의 일원으로서 지배 혹은 저항적 성 이데올로기에 동참한다. 따라서 이 과정은 패션을 소비자나 연결시키는 코드로 작용한다. 넷째, 내용의 실체는 사회 내에서 지배적으로 결정화 된 이념, 즉 사회문화적 맥락을 나타낸다. 이는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체계와 이데올로기를 드러낼 것이며 패션으로 코드화 된 성 이데올로기의 배경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기호학의 생산자-대상-사용자의 3단계 모델에서 대상을 패션의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생산자는 패션산업의 디자이너나 기업주로, 사용자는 패션상품의 소비자로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패션산업의 로고테크닉으로부터 나타난 주류패션은 소비자에게 주류문화의 지배적 성을 반영하며, 하위문



<그림 1>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모델

화 소비자 집단에 의한 반패선은 새로운 패션코드의 창조를 통해 저항적 성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위문화의 기호가치는 다시 패션산업에 의한 반패선의 전유를 통해 주류문화로 흡수되는데, 이는 대안적 성이라는 절충적 양상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패션 산업과 문화를 통해 사회 내 주류집단을 형성하는 헤게모니적 성을 '지배적 성'으로, 이에 대한 하위문화 집단의 성을 '저항적 성'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패션실천을 각각 주류패션과 반패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하위문화 집단의 반패션이 주류패션과의 절충을 통해 지배문화로 재전유된 경우를 '대안적 성'이라 규정한다.

III. 예비조사

본 장에서는 사회기호학적 분석에 앞서 예비조사 차원에서 패션에 나타난 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2000년 이후 대중성 있는 남녀 패션잡지에 나타난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해 현대패선에 표현된 다원적 성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성 유형화를 위한 참조 자료로 19세기 이후에서 20세기에 걸친 패션에 나타난 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여성성의 경우, 최현숙³⁾은 전통적 여성성, 페미니즘 여성성,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으로, 김정선·김민자⁴⁾는 종속적 여성성,

관능적 여성성, 모성적 여성성, 관능적 개성적 여성성, 자율적 도덕적 여성성으로, 김은희⁵⁾는 전통적 여성성, 능동적 여성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남성성의 경우 이민선⁶⁾은 권위적이고 강건한 남성성, 여성성을 도입한 코믹한 남성성, 해방적 남성성으로, 송명진·채금석⁷⁾은 동성에 남성성, 영웅적 남성성, 양성적 남성성, 성 도착적 남성성으로, 도희·양숙희⁸⁾는 전형적 남성성, 성적 대상화된 남성성, 범창조적 남성성으로 유형화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종합적으로 여성성은 19세기에 개념화된 전통적 혹은 전형적 여성성, 남성화된 여성이나 능동적 혹은 해방적 여성성, 관능성과 섹슈얼리티를 강조한 여성성,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따른 성의 해체나 절충을 표현한 여성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남성성의 유형은 19세기의 전통적 혹은 전형적 남성성, 관능적이고 성적 대상화된 남성성, 남성다움을 과장한 남성성, 절충적 해체적 이미지의 남성성으로 요약된다.

내용분석을 위하여 2005년 8월과 2006년 2월에 걸쳐 여성잡지(Vogue Korea, Elle Korea) 217편, 남성잡지(GQ Korea, Esquire Korea) 130편으로 구성된 총 347편이 조사되었다. 성 유형별 코딩에서는 각 패션사진의 언어기호와 시각기호 모두가 고려되었지만, 객관성 차원에서 언어적 요소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각 패션사진별 분석은 사진작가와 에디터, 모델, 타이틀과 서브타이틀, 세부설명이나 본문에 나타난 언어기호를 시각기호와 대조하면서 성 유형 별로 코딩하였다(표 1). 총 347편의 사진 시리

<표 1> 선정된 패션!사진에 나타난 언어내용과 성 유형별 코딩표

잡지명/ 년월	사진작가/ 편집자	모델	타이틀	서브타이틀	세부설명 혹은 본문의 형용사	주요테마	패션이미지/ 성 관련 형용사	성 유형화 (여성성/남성성)	
								코더 1	코더 2

<표 2> 여성잡지에 나타난 여성성의 유형별 빈도와 비율

여성성	전통적 여성성	글래머 여성성	양성적 여성성	미성숙한 여성성	무성적 성	계
빈도(개)	60	19	57	16	4	156
비율(%)	38.4%	12.2%	36.5%	10.3%	2.6%	100%

<표 3> 남성잡지에 나타난 남성성의 유형별 빈도와 비율

남성성	전통적 남성성	마초적 남성성	양성적 남성성	청소년 남성성	무성적 성	계
빈도(개)	37	15	26	16	9	156
비율(%)	36%	14.6%	25.2%	15.5%	8.7%	100%

즈는 연구자의 재테스트와 2명의 코더 간 신뢰도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코더 간 일치도는 81.9%의 신뢰도를 보였다. 따라서 347편 중 코더 간에 불일치한 사진들과 2개 이상의 이미지가 중첩된 사진들을 제외한 후, 여성잡지 156개, 남성잡지 103개의 총 259개를 내용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로부터 패션잡지에 나타난 성 유형화는 선행연구와 선정된 패션사진의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각각 5가지의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의 경우 전통적 여성성, 글래머 여성성, 양성적 여성성, 미성숙한 여성성, 무성적 성으로, 그리고 남성의 경우 전통적 남성성, 마초적 남성성, 양성적 남성성, 청소년 남성성, 무성적 성으로 구분된다⁹⁾. (표 2)와 (표 3)은 각 여성잡지와 남성잡지에 나타난 유형별 빈도와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성잡지의 경우, 여성은 전통적 여성성과 양성적 여성성이 유사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점에서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성은 과거에 비해 지배담론에서 전통적 여성성을 선회할 정도로 패션에서 자주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남성잡지의 경우 압도적으로 전통적 남성성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남성의 시

각에서 남성우월적인 보수적 가치가 여전히 지배담론을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양성적 남성성은 남성에게도 점차 나타나는 몸과 외모에 대한 관심의 확산과 함께 그 다음의 비율을 차지한다. 청소년 남성성은 그리 높은 비율은 아니나 연구대상이 주류성인 남성 잡지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젊음에 대한 가치 증가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IV. 2000년 이후 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

현대사회에 나타난 다원적 성 정체성들은 서로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 권력의 그물망을 형성한다. Currie¹⁰⁾는 패션잡지가 이러한 성 정체성의 전장을 구성하면서 성에 대한 지속적인 정의와 실천을 협상하기 위한 장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본 장에서는 내용분석을 통해 나타난 성 유형들을 토대로, 사회기호학적 시각에서 다원적 성 정체성들 간의 관계를 통해 20세기 후반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2000년 이후의 패션에 표현된 성 이데올로기를 유추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현대 패션과 접합된 다원적 성

정체성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권력관계를 형성해 현대의 규율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 지를 추론할 것이다.¹¹⁾

2000년 이후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20세기 후반, 특히 1980,9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패션의 글로벌화와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의한 정보의 공유는 한국의 주류 패션잡지에 나타난 성 담론을 전 세계의 균질화를 통해 단일한 역사적 맥락 하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20세기 후반 이후를 특징지었던 포스트모더니즘은 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해체하였고, 사회는 갈수록 하나의 획일화된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다원성과 상대성을 추구하면서 성도 단순히 성별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다각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은 경제적 풍요 속에서 특히 소비의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후기자본주의 소비문화를 이끌었으며, 대중매체의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광범위하게 나타난 몸과 패션의 통치체계는 이 시기 한국의 성 담론을 결정짓는 중요한 차원을 구성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페미니즘과 결합해 과거의 급진적인 성의 평등의 지향보다는 양성이가진 성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을 야기했고 이는 초자유주의 및 개인주의 경향을 이끌어, 현 한국사회에는 새로운 성 정체성들의 출현과 함께 전통적 성의 권력구도가 재편되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의 2000년 이후 남녀 주류 패션잡지에 나타난 성 유형들 간의 관계는 내용분석의 결과, 여성성의 경우 전통적 여성성과 양성적 여성성이 유사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으므로 이 두 가지 여성성을 지배적 여성성으로, 그 외에 글래머 여성성, 미성숙한 여성성, 무성적 성을 대안적 여성성으로 고려하였으며, 남성성의 경우는 전통적 남성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므로 이를 지배적 남성성으로 보고, 그 외 마초적 남성성, 양성적 남성성, 청소년 남성성, 무성적 성을 대안적 남성성으로 간주하였다. 동일한 역사적 시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이들 남녀 모두의 다원적 성 정체성들 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다양한 패션이미지를 통한 새로운 성의

출현과 이들 간의 헤게모니적 투쟁을 통해 현대사회의 성 이데올로기를 구축한다.

1960년대 성의 혁명 이후 AIDS의 공포와 함께 나타난 성적 반동의 경향은 신보수주의를 낳았으며, 급변하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중장년층 집단을 중심으로 과거에 대한 향수와 복고적 경향을 가져온다. 전통적 여성성은 19세기 빅토리아니즘으로부터 개념화 된 우아한 숙녀나 어린 시절부터 이상화 된 '요정공주'의 현대적 모습으로 현대여성의 정체성의 일환으로 지속된다. 패션에서 1940, 50년대의 뉴 룩이나 샤넬 룩을 토대로 나타난 피트 앤 플레어 실루엣, 파스텔 톤의 색상, 얇고 부드러운 소재, 잔잔한 꽃무늬와 여성적 장식의 로맨틱한 드레스(그림 2-1)나 트위드 재킷과 스커트, 블라우스의 클래식한 수트 정장(그림 2-2)으로 로맨틱 페미닌 룩을 통해 여성의 장식성과 관능성을 보여주면서, 샤넬 룩을 통해 여성의 단정함과 정숙성을 부가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엘리전트 레이디 룩으로 나타난 패션 이미지는 현대화에 따른 단순화, 기능화 경향을 수용하면서 변화 발전한 클래식 룩으로, 성적 매력이 있는 정숙한 숙녀이자 가사 일과 외모 가꾸기에 충실한 가정주부(그림 2-2)이며,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는 이성애적 여성(그림 2-3)으로 부와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우아한 상류층 여성(그림 2-4)을 암시한다. 이러한 패션이미지는 19세기 후반의 수동적, 관능적, 사적 영역의 여성성이 이후 역사적으로 진전된 페미니즘이나 현대화에 따른 단순화, 기능화 경향을 수용하지만 현재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 여성성을 클래식 룩을 통해 재현하는데, 이는 과거 4,50년대의 초여성성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반영하는 복고풍 패션 트렌드로 하이 테크놀로지의 진보에 대한 역반응으로 나타난 전통성의 추구로도 볼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여성의 정체성 유희를 즐긴다. 그러나 한국의 주류 여성패션잡지에서 이와 같은 전통적 여성성의 주류 담론화는 전통적 이성애의 낭만적 각본이 한국의 여성에게 욕망을 형성하는 데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암시할 뿐 아니라, 성형수술이나 젊어 보이는 패션스타일로 협상하는 전통적 여성성

의 재현(그림 2-f)은 시대적 미의 통치체계에 강하게 구속된 허위의식으로서의 여성성을 드러낸다.

한편, 19세기 말 이후로 꾸준히 진행되어 온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 특히 2000년 이후 한국의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제전의 영향은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문화의 다원화와 포스트모던페미니즘과 맞물려 수동적이고 성적 매력에 있는 전통적 여성성으로부터 여성의 권위와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는 60년대의 중성적 여성이나 7,80년대의 호전적인 전사로서의 여성이 아닌 여성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여성성에 대한 재정의의를 야기한다.

양성적 여성성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20세기 후반이후 주로 젊은 남녀를 중심으로 나타난 성에 대한 가치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선호와 여성 전문직종의 다각화,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서의 여성과워와 함께 보다 혼성적인 측면을 보인다. 여성패션잡지에서 양성적 여성성은 독립적 직업여성(그림3-1)과 강인한 스포츠 우먼(그림3-3)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패션은 같은 공식적 전문직 복식으로 남성 테일러드 수트나 스포츠 웨어와 같은 남성복 아이템과 실루엣, 소재를 차용하지만, 안은 화려한 컬러와 장식적 디테일 및 액세서리의 사용을 통해 남성적 유용성과 여성적 관능성을 혼합한 야누스 룩(그림3-2)이나 남녀 복식코드의 교환을 의미하는 크로스 룩(그림3-4)으로 단순히 남성화된 형식이 아니라 전통적 남성성과 여성성의 장점을 혼합하는 패션이미지로 나타난다. 2000년 이후 여성패션에서 페미컬린 룩¹²⁾(그림3-2)이나 에슬레틱 룩(그림3-5), 밀리터리 룩, 유틸리티 룩 등은 이러한 양성적 여성성을 보여주는 패션이미지로, 이는 여성성의 가치를 배제하지 않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초 자유주의 경향과의 결합을 통해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적 요소를 해결하고자 하며, 미묘한 동성애적 함축도 나타나 전통적 이성애에 저항한다(그림3-4). 그러나 양성적 여성성을 재현하는 패션 이미지의 배후에는 남성중심적 직업에서 여성성의 강조를 통해 위화감을 완화시키려는

여성의 전략을 함축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적 여성성과는 다른 차원의 여성성의 가장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전통적으로 건강 및 몸의 관리를 둘러싼 담론의 주체가 남성이었으며 한국사회에서 공적 담론으로 여성의 건강과 운동이 논의된 것이 1980년대 이후로 비교적 최근임을 감안할 때, 스포츠와 결합된 양성적 여성성은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여가를 통해 사회관계를 맺고 체력을 증진시켜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독립성과 자율성과 관련된다. 그러나 소비문화 속에서 스포츠는 남녀에게 서로 다른 맥락을 구성할 수 있으며, 스포츠와 결합된 여성성(그림3-5)은 젊고 날씬한 몸을 위한 개인화 된 실천으로 나타나 지배규범의 내재화된 형식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적 여성성은 공적인 남성의 영역을 여성적 섹슈얼리티와 절충하는 패션코드의 조합을 통해 힘과 권력을 향한 현대 여성의 욕망을 보다 완화된 형식으로 합법화시켜 현대 한국사회의 지배적 여성성의 범주로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이는 여성성에 대한 개념의 변화 혹은 확장을 의미한다.

1980년대부터 나타난 사회 내 여성적 가치의 증가는 남녀 관계에 보다 수평적인 권력관계를 유도해 남성성의 개념과 남성 소비자들의 패션 실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누스 룩은 본고에서 양성적 남성성이라 칭해진 여성화 된 남성의 이미지에서도 나타난다. 20세기 후반 제 2과 페미니즘과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소비의 주체를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까지 확장하였고, 이는 남성패션산업에서 남성패션의 세분화와 다양화와 연결되었다. 한국사회에서도 1990년대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타난 캐릭터 남성정장 이후 여가복 외에도 감각적인 비즈니스 패션의 지속적 성장은 2000년 이후 한국에서의 남성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성적 남성성은 '메트로 섹슈얼'로 알려진 날씬하고 균형잡힌 몸과 패셔너블한 스타일의 관능적이고 부드러운 남성성으로 전통적 남성성과 대립적으로 나타난다. 패션에서는 슬립 앤 피트 실루엣의 신체 윤곽을 강조한 포멀 정장(그림4-1)에서, 세퍼레

이츠 세미정장(그림 4-2), 스포츠 캐주얼에 이르기까지 아이템을 한정하기보다는 남성적 외형에 여성적 컬러, 소재, 액세서리의 측면과 자유로운 착장방식을 통해 남성적 코드와 여성적 코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양성적 여성성과 유사한 야누스 룩이나 크로스 룩을 보인다. 이러한 패션 이미지에서 남성은 현대 소비문화에서 여성의 몸이 위치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몸에 대한 감시와 날씬함의 통치체계 하에서 성적으로 대상화 된 남성성을 재현한다(그림4-3). 또한 메트로섹슈얼 맨은 중상류층의 성취지향적 남성이면서 관능적 자아도취적 패셔너블한 남성으로 동성애적 암시도 보인다(그림4-4). 이러한 양성적 남성성의 등장은 다양한 성 정치적 운동들과 성취적 개인주의의 진보를 포함한 사회적 맥락에서 남성의 역할과 삶의 조건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의 여성패션잡지에 등장한 대다수의 남성이 양성적 남성성이며 남성패션잡지에서도 양성적 남성성이 전통적 남성성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성의 변화와 함께 차후의 남성성의 개념의 변화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남성잡지에서 양성적 남성성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가정적인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듯 하나, 여성을 남성의 완벽한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한 장식적 대상이나 성적 대상화시킴으로써 동성애나 유약한 남성성의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남성성과 섹슈얼리티를 물의없이 결합시킨다(그림4-5). 이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힘 있는 여성과 유약한 남성의 구도가 유발할 수 있는 남성 중심적 사회 규범의 전복 가능성에 대한 남성들의 위기의식을 함축한다. 이로 인해 남성패션과 남성성의 변화는 여성의 경우 비해 덜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남성잡지에 등장한 양성적 남성성은 남성우월적 성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이라는 역설과, 동시에 남성의 성공적 삶을 강하게 남성의 육체성과 결합시키는 소비사회 논리의 조작에 의한 비현실적 남성성이라는 측면을 드러낸다.

이 점은 본 고의 남성잡지에 나타난 지배적 남성성이 압도적으로 전통적 남성성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20세기 후반 이후 한국에서도 젊

은 층을 중심으로 남성 패션은 다양한 변화를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활동을 위한 남성의 공식 유니폼인 모던 수트는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전통적 남성성의 입지를 고수한다. 패션에서 약간의 허리선이 들어간 테일러드 수트로 대표되는 기업적 파워 룩(그림5-1)과 트위드 재킷, 면셔츠, 바지, 스웨터 등의 프레피 룩(그림5-2)으로 어두운 무채색 계열의 면이나 울 소재, 스트라이프나 체크무늬에 디테일과 액세서리가 거의 배제된 기능적인 모던클래식 룩은 이전보다 비공식성과 미묘한 관능적 암시를 드러내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패션 이미지는 강한 표정이나 역동적인 포즈와 함께 19세기의 전형화 된 전통적 올드 맨을 보여주는데, 기업적 파워 룩으로 재현된 전통적 남성성은 보수적이고 강한 성취지향적인 가부장으로, 이성애적 남성성을 지향하며, 특히 여성과의 관계에서 남성우월적 구시대적 섹시즘을 고수한다(그림5-3). 이를 통해 가부장적 올드 맨은, 제 2차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나타난 전통적 남성성에 반하는 다양한 남성성의 증가와 여성의 권위 상승에 따른 위기의식을 과거에 대한 향수와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복고적 클래식 룩을 통해 안정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전통적 올드 맨은 사회적 위기의식 뿐 아니라 나이에 대해 근심하는 중장년층의 남성이며, 패션에서 과거에 비해 미묘한 관능적 암시를 보이는 재단을 통해 대안적 남성성과 협상한다. 이러한 패션 이미지는 80년대 이후성의 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신보수주의 및 고도로 발달하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역작용으로 등장한 전통 추구경향, 그리고 한국에서의 1990년대 중반 이후 경기불황의 영향으로도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류 남성잡지에 나타난 이러한 패션이미지의 강화는 보수적 한국사회 현실에서의 남성성의 위치와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의 고수로 보는 편이 보다 적절할 듯 하다.

이러한 남성우월적 성 이데올로기는 남성잡지에서 전통적 초남성성으로 나타난 마초적 남성성에서도 부각된다. 마초적 남성성은 전시에 국가중심적으로 훈육된 영웅적인 군사적 남성성으로 주로 전쟁

과 스포츠와 결합된 남성의 힘과 육체성을 강조한 과장된 남성성(그림6-1)을 보이며, 패션에서는 주로 밀리터리 룩이나 유틸리티 룩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작업복이나 유니폼으로 신체적 효용성과 강한 육체성 강조하지만, 때때로 반누드와 액세서리의 착용과 함께 관능성을 드러낸다(그림6-1). 이러한 관능성은 마초적 남성성의 강한 남성동맹의식과 함께 동성애적 암시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 남성성과 마찬가지로 여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을 매우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보호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동성애적 혐의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남성 위기의식에 대한 반동을 드러낸다(그림6-2). 사실상, 한국 주류 남성패션잡지에서 강하고 터프한 남성상으로서 마초적 남성성은 소수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비록 전통적 남성성이 헤게모니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시에 국가적으로 훈육된 강하고 폭력적인 초남성은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주류가 아님을 암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초적 남성성을 지향하는 패션이미지는 남성성의 위기에 따른 과거지향적 남성의 환상의 재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패션잡지에서 이처럼 육체성과 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는 글래머 여성성이 있다. 20세기 후반 마돈나의 인기는 여성의 출산과 섹스에 대한 분리된 인식을 가져왔고, 이제 성적 쾌락은 여성들에게 종종 해방된 여성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다. 2000년 이후 한국사회에는 여성의 성적 욕망과 쾌락에 대한 무수한 담론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빈번히 패션과 접합되어 나타난다. 글래머 여성성은 19세기 매춘부 여성에서 유래해 20세기에 보편화된 여성성으로 전통적 여성성에서 성적 매력과 섹슈얼리티를 극대화한 에로틱한 팜프파탈 여성성을 보인다. 이는 패션에서 피트 실루엣의 화려한 색상과 소재 등으로 코르셋, 브라 등 언더웨어, 반짝이는 소재의 드레스나 모피 혹은 레오파드 재킷 등을 통한 글래머 룩(그림7-1)과 패티시 룩으로, 여성의 신체 노출과 육감적 묘사, 성에 대한 물신적 욕망의 표현과 때때로 완화된 복장도착(그림7-2)과도 관련되어 나타난다. 사실상, 여성패션잡지에 나타난 여성의

관능성과 신체노출의 극대화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성을 관리하는 주체적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데, 이는 특히 관능적이고 유약한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여성의 암시적 권력을 나타내기도 하며(그림7-3) 때때로 동성애적 함축을 통해 저항적 섹슈얼리티를 구성하기도 한다(그림7-2). 그러나 여기서 여성은 과감한 신체노출과 함께 종종 자연이나 동양과 결합되어 타자화되며(그림7-4), 남성을 유혹하는 치명적인 팜프파탈 이미지를 재현하기도 한다(그림7-5). 그리고 남성패션잡지에서 무수히 등장하는 글래머 여성성은 성적, 쾌락적 대상이나 물신적 욕망의 대상을 강하게 부각시킨다. 이러한 여성성의 재현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타자화 된 존재라는 것과 여성의 성적 개방이 해방적 차원보다는 여성의 고유성을 손상시킨다는 사고를 암시함으로써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

여성패션잡지에 나타난 또 다른 대안적 여성성은 미성숙한 여성성으로, 이는 1960년대 싱글 걸의 현대적 현시이며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미성숙한 중성적 몸의 소녀임과 동시에 소비 지향적이고 암묵적으로 용인된 성적인 여성성을 상징적으로 함축한다. 패션에서는 피트 앤 플레어나 엠파이어 라인의 섬세한 주름이 들어간 홀터 넥 원피스나 레이스가 달린 캐미솔 탑에 미니스커트로 파스텔 톤의 컬러, 얇고 가벼운 소재, 잔잔한 꽃무늬나 여성적 디테일이 들어간 롤리타 룩(그림8-1)과 카디건이나 블레이저 자켓에 넥타이, 체크무늬 플리츠 스커트 등의 스쿨 걸 룩에 2000년대 이후에는 다소 완화된 핑크룩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부가된다(그림8-2). 이는 미성숙하고 중성적인 소녀의 이미지와 성적 이미지가 결합된 베이비 돌 이미지로, 신체노출과 유아적 순수함을 동반한 수동성과 관능성을 나타내며(그림8-1), 특히 남성과의 관계에서 장식적 응시의 대상 혹은 성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서 전통적 여성성을 재생산한다(그림8-2).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몸의 컬트화가 진행되어왔고, 전형적인 사춘기 소녀의 미성숙한 여성의 몸은 젊음과 날씬함의 통치체계를 간명하게 요약한다. 또한 1960년대 유니섹스 룩 이후 패션에서 청소년층을

겨냥한 브랜드의 거대한 증가는 소비주체로서의 미성숙한 여성성을 암시하는데, 여기서 젊음의 숭배는 소녀다운 미성숙함의 형태로 소비상품과 결합한다. 현대 사회에서 십대 여성은 대중매체에서 소비의 주체이자 성 상품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로부터 미성숙한 여성성은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 되며, 이는 때때로 원조교제나 청소년 매매춘과 같은 사회문제를 결합된다. 따라서 비록 여성패션잡지에서 미성숙한 여성성은 단순히 젊음과 날씬함이라는 지배적 가치에 대한 여성의 역할모델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미성숙한 소녀의 성적 이미지는 종종 소비사회의 성 상품화나 소아성애와 같은 아동 성 착취와 관련한 담론을 생산해 낸다(그림9-5). 그리고 이는 남성패션잡지에서 미성숙한 여성성과 대비된 반항적 남성성의 이미지 재현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가시화된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는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와 차별화되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X세대 혹은 N세대와 같은 신조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남성 청소년을 의미해왔고, 이는 제 2차대전 이후에 나타난 청소년 반문화 이후 주로 젊고 자유분방하며 반항적인 남성성을 형성하였다. 이는 전통적 남성성에 대립함과 동시에 여성스럽고 유약한 양성적 남성성에도 저항적이고, 젊음의 가치와 주로 스포츠와 클럽 문화를 중심으로 배타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청소년 남성성으로, 반항적인 사춘기 소년으로서 동시에 미성숙한 소년의 모순적인 남성성을 보인다. 사춘기 소년의 미성숙한 몸은 특유의 반항적이고 느긋한 포즈로, 이러한 느긋한 몸 이미지는 패션에서 주로 무형식의 심플하고 간편하며 다소 단정치 못한 스타일과 결합한다(그림9-1). 이러한 패션은 대체로 셔츠와 진을 중심으로 그런지 룩¹³⁾이나 힙합패션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소년 남성성은 때때로 화려한 컬러나 장식적 디테일과 액세서리의 여성적 패션코드를 차용하기도 한다(그림9-2). 이러한 패션 이미지로부터 나타나는 청소년 남성성은 전통적 남성성에 대해 반항적이면서 동시에 느긋하고 편안하며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이 점

에서 그들은 반 엘리트주의적이며 쾌락적인 사춘기 소년으로, 강하고 호전적인 남성의 이미지를 보이지만, 동시에 매우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패션을 통해 배타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소비주체로 주로 스포츠를 표방한 고급 브랜드의 세련된 스타일을 지향한다(그림9-3). 또한 여성적 패션코드의 혼합을 통해 미성숙하고 양성적 이미지로 동성애적 암시도 보이는 개방적 섹슈얼리티를 보인다(그림9-4). 여성과의 관계에서 이들은 종종 여성에 대한 성 착취적 측면과 함께 남성의 강한 호전성을 부각시키는데(그림9-5), 이 점에서 미성숙한 여성성의 성 착취적 담론은 남성패션잡지를 통한 남성적 담론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청소년 남성성은 미성숙한 여성성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젊음의 가치와 그들만의 정체성을 표현을 중시하는데, 패션은 이러한 청소년 남성성의 정체성 표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무성적 성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초자유주의, 포스트모던페미니즘 등의 영향으로부터 성적 특질을 배제한 젠더리스 룩의 패션이미지를 통해 양성적 관계의 해결을 모색한다. 이것은 60년대의 유니섹스 룩과 80년대의 앤드로지너스 룩이 90년대 이후에 변화된 것으로, 유니섹스 룩이 주로 여성복의 남성화로 중성적 경향을 보이고 앤드로지너스 룩이 주로 남성복의 여성화로 양성적 경향을 보인다면, 젠더리스 룩은 여성적 요소와 남성적 요소를 모두 공유하며, 대체로 남성의 여성적 이미지와 여성의 보이시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이지캐주얼(그림10-1)이나 모즈 룩과 같은 보이시 룩(그림10-2)(그림10-3)으로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양성 모두의 젊음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에 둔 개인의 취향과 쾌락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 점에서 무성적 성은 양성적 여성성과 양성적 남성성의 섹슈얼리티의 강조와 미성숙한 여성성과 청소년 남성성의 연령 가치를 공유한다. 무성적 성은 본고의 남녀잡지에서 그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 패션을 통한 성별의 붕괴는 전체 주류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이분법적 성별 특질을 배제한 젠더리스 룩을 통해 성별 간에 존재하는 갈등이나 대

<표 4> 2000년 이전 여성패션잡지에 나타난 여성성

구분	지배적 여성성		대안적 여성성		
사회 문화적 맥락	-신보수주의와 노스텔지어 -물신주의, 초자유주의 -포스트!더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건강 및 여가에 대한 관심 급증		-후기자본주의 소비문화 -대중매체와 테크놀로지의 발달 -물신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해체주의		
성 이데올로기	-전통적 이성애의 성 이데올로기 -여성성의 개념 변화 및 확장 -젊음과 몸의 통치체계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담론화(소아성애, 원조교제 등) -젊음과 몸의 강력한 통치체계 -성별 경계의 완화		
	전통적 여성성	양성적 여성성	글래머 여성성	미성숙한 여성성	무성적 성
패션 이미지	엘리전트 레이디 룩 (로맨틱 페미닌 룩 + 모던 클래식 룩)	야누스 룩, 크로스 룩 (남성복 코드 + 여성복 코드)	글래머 룩, 페티시 룩	롤리타 룩, 스쿨걸 룩	젠더리스 룩(보이지 룩)
패션	-드레스나 원피스, 트윈드 재킷, 샤넬 슈트 등 -피트 앤 플레어, H실루엣 ; 파스텔 톤 얇고 부드러운 소재 ; 잔잔한 꽃무늬, 체크 리본, 프릴 등의 장식	-남성복 아이템(테일러드 슈트, 트렌치 코트, 트레이닝 슈트) -피트 실루엣과 박스 실루엣 ; 무채색 계열과 강한 색상대비 ; 트윈드, 가죽, 데님과 울, 쉬폰 -여성복 디테일과 장식(노출적 커팅선, 개더, 스틸레토 힐, 화려한 보석)	코르셋, 브라 등 언더웨어, 드레스, 슈트 ; 피트 실루엣 ; 화려한 컬러 ; 메탈, 시폰, 사틴, 모피 등 ; 레오파드, 동양적 무늬 ; 노출적 디테일과 화려한 장식, 진한 메이크업	홀터 넥 드레스, 비키니, 캐미솔이나 미니 스커트 카디건, 블레이저, 진 ; 피트 앤 플레어, 하이 웨이스트 ; 파스텔 톤 ; 면, 시폰, 새틴 잔잔한 꽃, 아가일 무늬 ; 리본, 프릴, 메리제인 슈즈	티셔츠, 남방, 폴오버, 바지, 재킷, 수트정장 네이비블루, 화이트, 블랙 ; 면, 울, 저어지 ; 헌팅캡, 운동화

<표 5> 2000년 이후 남성패션잡지에 나타난 남성성

구분	지배적 남성성		대안적 남성성		
사회 문화적 맥락	-신보수주의와 노스텔지어(하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반동) -경기불황		-후기자본주의 소비사회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성취적 개인주의, 쾌락주의 -남성복 패션산업의 확장성 이데올로기		
성 이데올로기	-전통적 이성애적 성 이데올로기 -구시대적 섹시즘(남성성의 위기) -젊음의 통치체계의 지배		-새로운 주체에 의한 남성성의 변화가능성 -몸과 젊음의 통치체계(성적 대상화된 남성) -남성의 성 역할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소비주체로서의 청소년 파워 -성별 경계의 완화, 자유로운 섹슈얼리티 -섹시즘,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전통적 남성성	마초적 남성성	양성적 남성성	청소년 남성성	무성적 성
패션 이미지	모던클래식 룩 (기업적 파워 룩, 프레피 룩)	밀리터리룩, 유틸리티룩	야누스 룩, 크로스 룩	그런지 룩, 힙합 스타일	젠더리스 룩
패션	-테일러드 슈트, 텍시도, 트렌치 코트 ; 카디건, 셔츠, 바지, 폴스웨터, 트윈드 재킷 등 -H실루엣, 아메리칸 스타일 ; 무채색 ; 울이나 면 편 스트라이프, 체크 -넥타이, 신사용 가방, 옥스퍼드화, 로퍼	재킷, 셔츠, 베스트, 바지 피트 실루엣, 신체노출 무채색과 강한 색상 대비 ; 울, 가죽, 퍼, 기능성 합성소재 ; 스카프, 벨트, 포켓, 화려한 액세서리	수트 정장, 세퍼레이츠, 블루종, 티셔츠, 청바지 등 ; 슬림 & 피트 실루엣, 브리티시나 유러피안 스타일 ; 여성적 컬러와 소재 ; 신체를 노출한 디테일 ; 화려한 넥타이, 포켓치프, 선글라스, 보석 등	자켓, 블루종, 티셔츠, 찢어진 청바지 ; 느슨한 무정형의 실루엣 ; 화려한 컬러 ; 데님, 면, 가죽, 네트, 실크 ; 여성적 디테일과 장식, 의도적인 지저분함	티셔츠, 러닝탑, 언더웨어, 재킷, 바지 ; 네이비 블루, 화이트, 블랙 ; 면, 모, 저어지 ; 운동화, 스카프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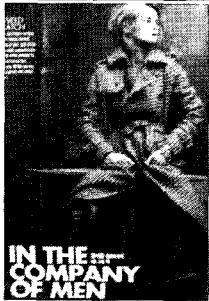
<그림 2> 전통적 여성성¹⁴⁾



<그림 2-4>



<그림 2-5>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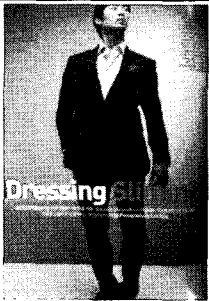
<그림 3> 양성적 여성성¹⁵⁾



<그림 3-4>



<그림 3-5>



<그림 4-1>



<그림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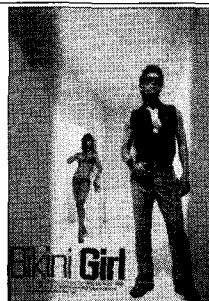


<그림 4-3>

<그림 4> 양성적 남성성¹⁶⁾



<그림 4-4>



<그림 4-5>



<그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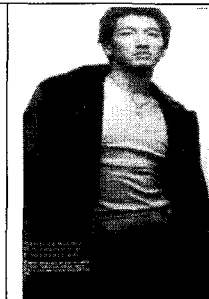


<그림 5-2>

<그림 5> 전통적 남성성¹⁷⁾



<그림 5-3>



<그림 6-1>



<그림 6-2>

<그림 6> 마초적 남성성¹⁸⁾



립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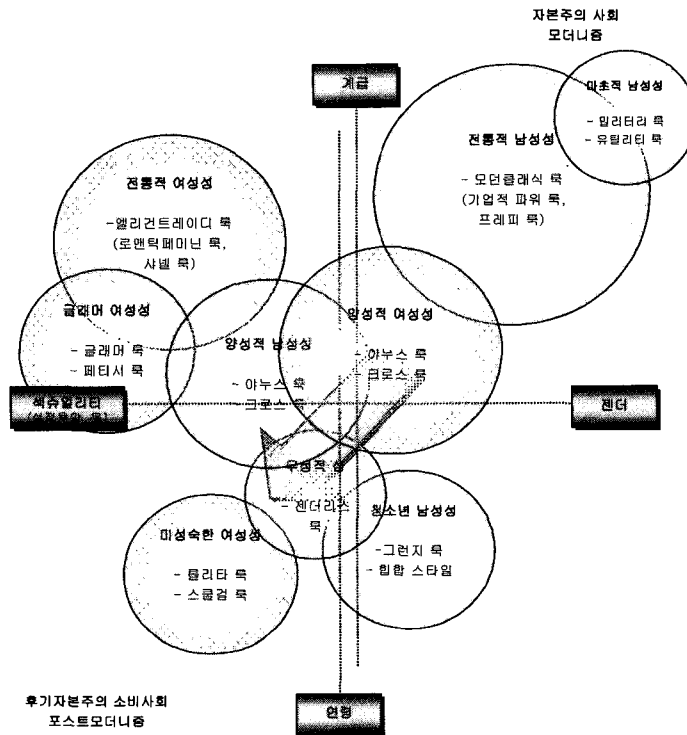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2000년 이후 한국의 남녀 패션잡지에 나타난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은 (표 4), (표 5)와 같다.

V. 종합적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후기구조주의적 측면의 다원적 성 개

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기호학적 시각에서 2000년 이후 남녀 패션잡지에 나타난 다원적 성 유형과 현대패션에 코드화 된 성 이데올로기를 추론하고자 하였다. 본 고에서는 제 1보에서 제시한 문헌적 연구와 패션에 표현된 성에 적용된 연구의 방법상의 틀에 따라 실증적 연구로서 2000년 이후 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을 유형화하고 현대패션에 코드화된 성 이데올로기를 유추해보았다.

Foucault를 중심으로 한 후기구조주의적 성 개념



〈그림 11〉 2000년 이후 남녀주류패션잡지에 나타난 다원적 성

은 성에 대한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권력관계를 통해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 따라 유동하는 다원적 성에 대한 시각을 제시한다. 이러한 성 개념을 토대로 사회기호학적 시각에서 2000년 이후 패션에 표현된 성은 이 시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배경으로 주류패션과 반패션이 각각 특정한 패션이미지를 구성하며, 이들로부터 지배적 성과 대안적 성을 이루는 다원적 성 유형이 제시되었다. 먼저 선행연구 및 내용분석에 의한 예비조사를 통해 현대패션에 표현된 성 유형은 지배적 성과 대안적 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즉, 여성패션잡지에서는 전통적 여성성, 양성적 여성성이 거의 유사하게 지배적 성으로, 글래머 여성성, 미성숙한 여성성, 무성적 성이 대안적 성으로 나타났던 반면, 남성패션잡지에서는 전통적 남성성이 압도적으로 지배적 성을 형성하였고, 마초적 남성성, 양성적 남성성, 청소년

남성성, 무성적 성이 대안적 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 이후 남녀패션잡지에 표현된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이 맥락에 대한 고려로부터 성 유형별 패션이미지와 성 이데올로기가 추론되었다.

첫째, 지배적 여성성으로 나타난 전통적 여성성은 신보수주의와 노스텔지어로 나타난 복고적 경향으로부터 엘리전트 레이디 룩의 패션이미지를 보이는데, 이는 전통적 이성의 낭만적 각본이 여전히 여성의 욕망 형성하며 미와 젊음의 통치체계에 구축된 허위의식으로서의 여성성을 드러낸다. 또 다른 지배적 여성성인 양성적 여성성은 포스트모던페미니즘과 여성 파워의 증가, 그리고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부터 남성복 코드와 여성복 코드가 결합된 야누스 룩이나 크로스 룩을 통해 힘과 권력을 향한 현대 여성의 욕망과 함께 여성성의 개

념의 변화와 확장을 함축한다.

둘째, 지배적 남성성으로 나타난 전통적 남성성도 하이테크놀로지의 역작용으로 나타난 신보수주의와 전통 추구 성향과 함께, 단순하고 기능적이지만 비공식성과 미세한 관능성을 수용한 모던클래식 룩으로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의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의 지속을 보여준다.

셋째, 대안적 여성성으로 육체성을 강조한 글래머 여성성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의 확산으로부터 성에 대한 쾌락적, 물신적 욕망의 표현을 암시하는 글래머 룩이나 페티시 룩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타자화 된 존재로서의 여성을 드러낸다. 이는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함과 동시에 여성의 주체적 섹슈얼리티의 표현이라는 양가성을 지닌다. 또 다른 대안적 여성성으로 미성숙한 여성성은 후기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원조교제나 소아성애적 담론과 함께 미성숙하고 중성적이지만 성적 이미지의 롤리타 룩이나 스쿨걸 룩을 통해, 현대여성에게 나타난 젊음과 날씬함의 통치체계를 요약하며, 소비사회에서 성 상품화 된 여성성을 함축한다.

넷째, 대안적 남성성 중 전통적 남성성의 과장된 형식으로 강한 육체성을 보이는 마초적 남성성은, 기능성을 강조한 밀리터리 룩이나 유틸리티 룩을 통해 전시에 국가중심적으로 훈육된 초남성성을 제시한다. 잡지에서 마초적 남성성의 낮은 빈도는 한국사회에서 강하고 터프한 남성이 더 이상 주류가 아님을 보여준다. 반면에, 대안적 남성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양성적 남성성은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다양한 성 정치운동, 성취적 개인주의, 남성복 산업의 발달 등의 영향으로, 양성적 여성성과 유사한 야누스 룩이나 크로스 룩을 통해 남성의 성 역할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주며 아울러 차후의 남성성의 변화가능성 암시한다. 또한, 전통적 남성성과 양성적 남성성 모두에 대립하는 청소년 남성성은, 제 2차 대전 이후 시작된 청소년 하위문화의 지속적 성장과 쾌락주의 및 자유주의적 경향과 함께 느긋한 태도와 무형식의 심플하고 다소 단정치 못한 이미

지의 그런지 룩이나 힙합 스타일로, 젊음과 자유분방한 섹슈얼리티를 구가하는 쾌락적 정체성을 표현한다.

다섯째, 무성적 성은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해체주의, 초자유주의 등의 영향으로 성적 특질을 배제한 젠더리스 룩의 패션이미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중립을 통한 대립적 관계의 해결을 모색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림 11).

첫째, 현대패션은 성별과 계급을 표현하는 수단에서 점차 연령과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새로운 규율담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19세기 자본주의 시대에 전범으로서의 남성을 중심으로 한 이분법적 성은 20후반 이후 후기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어 청소년, 여성, 동성애자 등과 같은 새로운 주체의 탄생과 함께 성의 다원화가 진행되었고, 19세기 후반에 여성의 억압을 상징했던 코르셋의 위치에 이제는 다이어트라는 몸에 대한 새로운 통치체계가 들어선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도 한국의 주류사회는 여전히 남성지배와 여성종속의 권력관계가 유지되는 전통적 이성애의 법적 테두리 안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여성패션에 비해 변화가 느린 남성패션에서 보다 부각되는데, 이는 남성성의 헤게모니적 지위 이탈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여성패션에서 전통적 여성성과 양성적 여성성이 동시에 지배적 여성성을 형성한 것은 현대 여성성의 개념의 변화를 암시한다.

셋째, 현대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은 느슨해진 가족유사성을 보유하며, 이는 역사적 맥락에 따른 변화 뿐 아니라 동일한 역사적 시기에서도 맥락유동성을 보인다. 이로부터 성은 역사적으로 유동하며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실체임이 입증되며, 물질대상으로서의 패션은 이러한 성을 구성하는 동시에 해체하는 정체성 매개체로서 하나의 가장행렬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 정체

성들 간의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지배적 성, 저항적 성, 그리고 대안적 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잡지는 남녀 주류 패션잡지로 여기에 등장한 저항적 성은 이미 지배담론과 주류패션으로 전유된 것을 의미해, 결과적으로 실증적 연구에는 지배담론에 나타난 주류패션만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아직은 주류사회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다양한 하위문화 집단들의 패션 실천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의 반영한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하위문화집단이나 사회내 주변집단들의 패션을 통한 성 정체성 실천방식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잡지라는 시각적 재현물을 통해 성 이데올로기를 해석한 것으로, 이는 현실세계에서 실제 사람들의 패션을 통한 성 정체성 표현방식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 점에서 실제 현대 남녀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민속지학적(ethnographic)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물질문화로서의 패션을 고려해 볼 때, 성뿐만 아니라, 계급, 인종, 민족, 연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범주의 표현과 실천적 차원에서 현대 패션의 의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Foucault, Michel. *Histoire de la sexualit Tome 1 - la volont de savoir*. 이규현 (역)(1997). *성의 歷史 - 제 1권* 앞의 의지. 서울: 나남출판.
- 2)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이란, 잡지에 기사 내지 화보화되어 게재되는 것을 전제로 촬영한 사진으로, 패션광고나 패션 카탈로그 사진과는 달리 잡지사의 편집자나 아트 디렉터가 사진가와 기획하여 제작한 패션 기획 기사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의 패션동향이나 기호 등을 제공하는 정보전달의 목적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획가치를 지니며, 재미있는 주제, 정보, 흥미로운 시각과 표현력, 개성적인 이미지 등을 특징으로 한다(김성민 (2005). 대중잡지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이 독자들의 '몸' 이미지와 수용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사진학회지, 12, p. 159).
- 3) 최현숙 (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김정선, 김민자 (2001). 빅토리아시대 유행복식과 반유행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I). 복식, 51(2); 김정선, 김민자(2001). 빅토리아시대 유행복식과 반유행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II). 복식, 51(6).
- 5) 김은희 (2002). 복식에 표현된 여성의 몸 이미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이민선 (1999). 남성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 19세기 중반 이후를 중심으로 -. 복식, 23(6).
- 7) 송명진, 채금석 (2001).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의 표현양상. 복식, 25(2).
- 8) 도 희, 양숙희 (2004). 뮤직비디오 의상에 나타난 남성 이미지 연구 - 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 복식, 54(3).
- 9) 본 연구의 대상이 주류 패션잡지를 감안해 볼 때, 여기에 등장한 성 유형은 지배적 성과 대안적 성으로 분류되며, 저항적 성은 이미 주류사회로 전유된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성 유형들 중 양성적 여성성은 역사적으로 독립적 직업여성과 강하고 호전적인 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무성적 성은 중성적이거나 성적 특질이 없는 것으로, 마초적 남성성은 군사 및 스포츠와 결합되어 주로 강한 힘을 강조하는 남성성으로, 그리고 청소년 남성성은 주로 하위문화적 특성과 결합된 반항적 남성성을 의미한다.
- 10) Currie, Dawn H. (1997). Decoding Feminity: Advertisements and Their Teenage Readers. *Gender and Society*, 11(4), p. 453.
- 11) 여기서는 2000년 이후 패션잡지에 표현된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만을 제시하며, 여성패션잡지와 남성패션잡지에 나타난 다양한 여성성들과 남성성들의 유형에 관한 설명과 구체적인 사진의 분석사례들은 (최경희 (2006). 현대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참조하시오.
- 12) 페미쿨린(femiculine)은 feminine + masculine 의 합성어로 로맨틱함과 매니쉬함이 결합해 남자처럼 입은 것 같지만 어딘가 섹시함과 같은 여성적 코드를 나타내는 새로운 매니쉬 룩의 형태이다. 페미쿨린 룩은 섬세함과 투박함, 단순함과 복잡함 등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요소들이 만나서 빚어내는 조화 혹은 부조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김현주 (2004, 8. 23) 매니쉬 룩으로 올 가을엔 섹시하게. from, www.trendin.patzzi.com/fashion/trend_fashion_view.).
- 13) 1980년대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된 더럽고 혐오감을 주는 지저분한 스타일로그 근원은 도회적 보헤미아니즘(bohemianism)에 있다. 미국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그런지 뮤직에서 유래된 명칭. 세기 말의 패션 전환기를 향한 거리의 청소년들에게서 시작된 영 스트리트 패션(young street fashion)의 일종으로 히피의 초라하고 남루한 분위기를 즐기며 하류층의 복식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낡은 느낌의 패치 워크, 감지 않거나 제멋대로 자른 머리, 군화 스타일의 부츠, 털실로 짠 옷 또는 모자 등을 활용하여 개성에 따른 창의적인 레이어링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패션 스타일 용어정리-네이버 지식iN, from http://kin.naver.com/open100/).
- 14) 왼쪽부터 Vogue (Korea) 2005년 7월호, Vogue (Korea)

- 2000년 10월호, Elle Korea 2004년 4월호, Elle (Korea) 2004년 1월호, Vogue (Korea) 2005년 10월호.
- 15) 왼쪽부터 Elle(Korea) 2003년 10월호, Elle (Korea) 2002년 10월호, Elle (Korea) 2001년 10월호, Vogue (Korea) 2001년 10월호, Vogue (Korea) 2004년 4월호.
 - 16) 왼쪽부터 GQ (Korea) 2002년 7월호, GQ (Korea) 2003년 10월호, GQ(Korea) 2002년 4월호, GQ (Korea) 2005년 7월호, GQ (Korea) 2005년 7월호.
 - 17) 왼쪽부터 GQ(Korea) 2004년 10월호, Esquire (Korea) 2005년 1월호, Esquire (Korea) 2002년 10월호.
 - 18) 왼쪽부터 Esquire (Korea) 2001년 10월호, Esquire (Korea) 2004년 10월호.
 - 19) 왼쪽부터 Elle (Korea) 2000년 4월호, Vogue (Korea) 2005년 10월호, Vogue(Korea) 2002년 7월호, Vogue (Korea) 2002년 4월호, Elle (Korea) 2000년 4월호.
 - 20) 왼쪽부터 Elle(Korea) 2004년 7월호, Elle(Korea) 2004년 10월호.
 - 21) 왼쪽부터 GQ (Korea) 2002년 7월호, GQ (Korea) 2004년 10월호, Elle(Korea) 2004년 10월호.
 - 22) 왼쪽부터 Esquire(Korea) 2001년 7월호, Esquire(Korea) 2001년 7월호, Esquire(Korea) 2001년 7월호, Esquire(Korea) 2003년 4월호, Esquire(Korea) 2003년 4월호.